'방자전' 송새벽

'하녀' 박지영

'의형제' 고창석

# 명품 조연들 짧은 등장 깊은 인상

## '방자전'서 어눌한 사투리 송새벽·오정세
## 박지영 '하녀'·전국환 '의형제'서 열연
## 맛깔스런 연기로 스크린 관객몰이 '톡톡'

'의형제' 전국환

'씬 스틸러'(Scene Stealer)라는 게 있다. 강력한 카리스마로 강렬한 존재감을 드러내는 주목 받는 명품 조연을 뜻하는 말이다. 최근 개봉한 영화 중 다양한 캐릭터로 변신하 씬 스틸러들이 여럿 눈에 띈다.

19세 관람가 영화임에도 불구하고, 200만명이 넘는 관객을 동원하며 흥행가도를 달리고 있는 '방자전'은 조역급 연기자들의 활약이 눈부시다.

특히 변학도로 분한 송새벽의 연기는 영화의 압권이다. 어눌한 전라도 사투리에 항상 불안한 듯한 시선 등을 통해 새롭게 해석된 변학도 캐릭터를 완벽하게 소하하고 있다.

봉준호 감독의 영화 '마더'를 통해 충무로에 데뷔한 송새벽은 '마더'에서 원빈을 취조하는 일명 '세팍타크로 형사'로 출연해 강한 인상을 남겼다. 이번에 맡은 변학도는 '방자전'의 김대우 감독이 좀 더 유명 배우를 원하는 제작자를 설득해 밀어부친 캐스팅이다.

후속작품도 속속 진행중이다. 설경구·이정진 등이 주역을 맡은 '해결사'에는 오달수와 단짝인 형사로 출연하며 '해운대'의 윤제균 감독이 제작하고, '화려한 휴가'의 김지훈 감독이 메가폰을 잡은 블록버스터 영화 '제 7광구'에도 캐스팅 된 상태다. 또 '시라노 : 연애조작단'과 류승범·황정민 주연의 '부당거래'에도 출연한다.

'방자전'에는 또 한명의 빛나는 조연이 있다. 남원관아 호방 역을 맡은 오정세다.

월매 역의 김성령과 첫 등장하는 장면부터 인상적인 연기를 펼치는 그는 변학도가 베푸는 잔치신에서 어리버리한 변학도를 갈구는 능글맞은 연기로 깊은 인상을 준다. 정확한 발음과 자연스러운 대사 연기가 일품이다. '라디오데이즈', '인사동스캔들''시크릿' 등에서 감초역할을 했다.

그밖에 '방자전'에 등장하는 웃음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오달수의 명품 연기도 더 이상 언급할 필요가 없을 정도다.

칸영화제 경쟁 부문에 진출해 화제를 모은 임상수 감독의 '하녀'에서 많이 언급된 건 전도연과 서우·윤여정 등의 연기지만 짧은 등장에도 깊은 인상을 남긴 배우가 있다.

바로 서우의 엄마 역으로 출연한 박지영. 딸과 자신의 욕망을 위해 거침없이 행동하는 엄마 캐릭터를 연기한 박지영은 이제까지 보여주지 않았던 강렬한 카리스마를 통해 영화 팬들을 깊은 인상을 남겼다.

부·권력·명예를 지키기 위해 어떤 짓도 서슴지 않는 표독스런 여자이자 남다른 모성애를 지닌 엄마로 분한 박지영은 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는 속물근성을 제대로 보여준다.

올 최고의 흥행작이었던 '의형제'에도 명품 조연들이 여럿 등장한다.

강동원의 목숨을 노리는 남파간첩 '그림자' 역을 맡은 전국환의 연기는 극에 긴장감을 불어넣는다. 조대부고 연극반 출신으로 대학로 연극판에서 잔뼈가 굵은 전국환은 '의형제'에서는 조금의 낭비도 없는 움직임, 망설임 없는 냉혹함을 통해 심장을 서늘케 하는 존재감을 선보였다.

그는 '식객'의 대령숙수, '작전'의 마산 창투 역을 연기하기도 했다.

같은 작품에서 베트남 조폭으로 등장한 고창석은 어눌한 한국말로 웃음 폭탄을 터트리며 강한 존재감을 드러냈다. 최근에는 박희순과 함께 출연한 '맨발의 꿈'에 모습을 보였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 새 영화 포화 속으로

6·25 당시 있었던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로 150억원이 넘는 제작비가 투입된 블록버스터다.

6·25 전쟁 발발로 공격적 열세에 처한 남한군은 낙동강 사수에 모든 것을 걸고 전력을 집중시킨다.

이미 전선의 최전방이 된 포항을 지켜야 하는 건 71명의 학도병. 총을 제대로 잡아본 적도 없는 소년들은 군인들이 모두 떠난 포항에 남아 두려움에 떤다.

### 6·25 실화 바탕 제작비 150억
### 학도병 71명-인민군 766부대
### 포항 사수 놓고 전력 집중

강석대 대위는 포항을 71명의 학도병에게 맡기면서 유일하게 전투를 경험한 장범을 중대장으로 임명한다. 하지만 소년원에 끌려가는 대신 공산당을 무찌르겠다고 나선 갑조와 친구들은 대놓고 장범을 무시한다.

박무량이 이끄는 인민군 766 부대는 거침 없이 포항으로 진격하고 학도병들은 이들과 맞서게 되는데….

차승원·김승우·권상우·빅뱅의 탑 등이 주역으로 출연하며 박진희·김성령 등도 함께 호흡을 맞춘다.

'내 머리 속의 지우개'의 이재한 감독이 메가폰을 잡았다.

〈12세 이상 관람가〉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